

나는 지난 10월에 두번 큰 행사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나 국가형제회 봉사자로서나 내 삶에 잊지 못할 경험이 되었습니다. 인디애나에서 있었던 국가형제회 총회가 그 하나였고 다른 하나는 뉴욕주 헌팅톤에서 있었던 미주 한인 재속회 연수회였습니다. 이 두 가지 전국적인 대규모행사는 뚜렷한 목적도 있었고 특유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나는 이 행사에 초대 받았을 때 좀 걱정스러웠지만 그건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나는 기쁨과, 놀라움과 감사를 하게 됐고 그때 생각을 하면 내 가슴은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형제애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었다는것입니다. 그러한 체험은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들은 보석과 같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죄라는 어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많은 문제들은 우리를 갈라 놓을 수 있고 어려운 대화는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완고한 마음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다른 언어와 다른 문화는 불신과 거리감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어두운 면들은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형제회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악은 전염되지만 두려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한 1:1-18 참조) 어둠은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친절과 예의가 충만할 때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우리가 다른 사람의 곤궁한것을 미리 알고 도와 줄때; 낯선 사람을 환대할 때 ; 모르는 언어를 누가 곁에서 통역해 줄때;새로운 의견, 사소한 의견까지도 경청하고 존중할 때; 귀 기울여 잘 듣고 하는 신중하게 하는 대화;진실로 이해받기보다는 이해 하려하고 할때;기쁨과 웃음으로 가득할 때. 나는 이 두 행사에서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국가 총회에서는 자기의 주장을 점잖고 겸손하게 개진하는 것을 보니 기뻐고; 소수에 대한 따뜻한 배려에 가슴이 흐뭇했습니다. 여기서는 의견은 달랐으나 불화는 없었고 장애가 되는 것은 성령의 도움으로 인내심을 갖고 감내했고 우리 모두는 프란치스칸 원칙을 믿었습니다. 언어면을 보면 다른 문화에서 온 사람을 초청하여 편안하게 해 줄수 있었던 한국 연수회가 모범적인 사례였습니다. 나의 보잘 것 없는 한국어 한마디도 잘 통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집을 떠나 낯선 곳에 머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 끼리는 서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속에 혼자 들어가 섞여서 형제애를 느낀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겠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훌륭하게 해 냈습니다. 물론 몇가지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같이 아침을 만드는 시간은 음식만드는 것 뿐 아니라 협력하는 기회가 되었고. 화장실을 같이 쓰면서 우리 모두가 같은 인간이란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이러한 불편은 우리가 너그럽게, 겸손하게 서로 도울때 오히려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이런 사랑을 맛볼수 있었다는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경험은 사람을 변화 시킵니다. 이런 경험은 진정하고 참되고 좋은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이런 경험은 우리를 경이로움으로 가득차게 합니다. 아우구스니노 성인은 “사랑은 일치를 낳고, 자만은 분열을 낳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확언하건데, 나는 이 두 모임들에서 어떠한 자만도, 분열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이점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이 행사가 다른 행사에 비해 특별했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사랑이 행동으로 실제로 행해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사실 나는 복음을 살겠다고 한 우리의 서약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희망의 근거가 필요했었습니다.

우리가 모일때 마다 이런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경험에 끝나지 않고, 우리의 할일은 이러한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이 지금 일어 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내가 이 두 행사에서 경험한 일이 우리 재속회에 큰 변화를 일으키리라고 믿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앞으로 향해 가도록 이끕니다.

곧 성탄을 맞이하게 되고 우리는 성탄구유와 크리스마스 트리의 반짝이는 불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등불을 하나하나 볼때마다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것이고 베드레헴 하늘에 빛났던 별과 같이 아기예수를 바라 볼때, 여러분은 사랑으로 환하게 반짝일 것입니다. 당신에게서 말하는 그 빛은 다른 사람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마치 “나는 사랑을 찾았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 바로 여기 구유에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사랑에 대한 얘기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겸손하게 닦아 오십니다. 우리도 주님께 겸손하게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열렬히 받도록 합시다.

2. 뜻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지니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이루어,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3. 무슨 일이든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4. 저마다 자기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아 주십시오. 14. 무슨 일이든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15. 그리하여 비뚤어지고 뒤틀린 이세대에서 허물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필리피 2:2-4, 14-15

이 글을 쓰고 나서 얼마 있다가 토마스 켈라노의 “프란치스코의 생애”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게 되었습니다.

“항심(恒心)의 토대위에 사랑의 고귀한 조직체가 형성되었고,
세계 각처에서 모여든 살아 있는 돌들이 세워져서 성령의 거처가 되었다.
오, 얼마나 큰 사랑의 정열로 이 그리스도의 새 제자들이 타올랐던가!

얼마나 큰 사랑이 이 경건한 단체안에서 피어 올랐던가!
어디에 가든지 혹은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면 사랑이 솟구쳐 올랐고,
다른 어떤 사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실한 애정의 씨앗인 사랑을 서로 뿌렸다.

이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었는가?
우아한 포용, 부드러운 애정, 거룩한 친구(親口), 즐거운 대화

품위있는 웃음, 즐거운 모습, 단순한 눈매, 순종의 정신, 온화한 말씨,
부드러운 대답, 목적의 단일성, 기꺼운 순종, 지칠줄 모르는 노력 등등을
우리는 그들에게서 볼 수가 있었다.

참조:프란치스코회 한국관구에서 펴낸 토마스 켈라노가 쓴 “아씨시 성프란치스코의 생애” 93 쪽 (제
15 장 38)